

오피니언

설날 아침에

표인주



설날은 가족 간에 복을 나누면서 새사
담으로 거듭 태어나는 날이다. 일반적으로
복이래 함은 인간에 의해 작용되든지,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부여되든지 간에
두루두루 넘겨져 갖추어짐을 의미한다.

차지해 나가고 있다.
가족이 확대된 것이 바로 친척이다. 흔히
친척이라 함은 나를 낳아준 부모를 중
심으로 같은 핏줄을 가졌거나 혼인을 통
해 관계 맺은 사람들의 집단으로 혈족
과 인척을 말한다.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한다

혈연 중심의 고유 명절

설날은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혈연 중
심의 명절이다. 가족은 혈연관계로 이루
어진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살림살이를
하면서 정서적으로 강한 유대감을 갖는
집단이다.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무너지
고 핵가족이 일반화되면서 요즘에는 이
마저도 변형된 수정가족의 형태가 등장하
기도 한다.

모부, 이모부 등은 인척이 되는 것이다. 이
러한 친척의 범위 또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데, 1989년에 개정된 가족
법에서의 '8촌 이내의 부계와 모계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라고 하는 범위
가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기 고



이상욱



아버지는 정말 애연가이었다. 지난날
소설가인 아버지가 집필하실 때는 항상
인손가락에 '백양' 담배가 끼워져 있었
다. 또 아버지는 당신 물레 담배 한두 개
비를 빼는 나이에 선물로 들어온 라이
터를 주시기도 했던 화끈한 분이셨다.

만은 피우지말라 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그러나 나는 존엄한 가정의 권위를 앞세
워 그들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고,
또 매스컴에서도 발암물질의 집합체인
담배의 백해무익함과 간접흡연의 폐해
에 대해 자주 언급했지만 남의 일처럼
무시해버렸다.

담배에 얽힌 이야기

그러나 세월이 흘러 재작년 말일 그러
니가 2009년 12월 31일 밤 11시50분 쯤,
나는 잔뜩 긴장을 하면서 담배 한 개비
를 꺼내 물고ライター를 켰다. 뿜어져 나
오는 연기를 보면서 '아, 이것이 마지막
이다.' 하고 다짐을 했다. 그리고 재야의
중소자가 울리기 바로 직전 팔에 불려
반 정도 남아있는 담뱃갑과 재떨이 그리
고ライター를 내 눈에 영원히 안 띄도록
치우라고 명령(?)했다.

정말 괴롭다는 것이다. 버스를 타면 옆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기도 하고 친구들
은 담배를 피우냐고 묻기도 한다고 한
다. 특히 교사인 딸애는 학생들에게서
자주 그 말을 듣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금연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기 고

박윤근



연일 동장군이 기세를 떨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를 지칭하는 삼한
사온을 우스갯소리로 삼한사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올 겨울
은 어느 해보다 추운날이 계속되고 있
다. 92년전 이맘쯤도 아마 요즘만큼 추
웠을 것이다. 아니 더 추웠을지도 모른
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우리 선조들
의 마음은 일제의 만행이라는 칼날 같
은 바람에 더 얼어붙지 않았을까.

2·8독립선언일에 즈음하여

로 시작하는 2·8독립선언은 미국 대통
령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와 파리
강화회의 및 국제연맹에서 한국을 비롯
한 약소민족대표들의 발언권을 인정해
야 한다는 보도 등을 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에 더해 일본에서 영국인이
발간했던 '저편 애드버타이저'지(誌)에
게재된 '재미 한국인들이 미국 정부에
한국 독립을 위한 원조를 요청하는 청
원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를 접한 재일
유학생들 사이에서 독립운동의 분위
가 고조되면서 이루어졌다.

올려야 한다. 설날에는 당연히 떡국을 올
린다. 그리고 성묘는 설날에 복은해를 보
내고 새해를 맞이했다는 인사를 조상의
묘에 고하는 것으로, 묘소가 잘 있는지를
살펴보러 간다고 하여 '성묘'라 부르고, 묘
소에서 간단한 차례를 지낸다고 하여 '산
소차례'라고도 부른다. 가정에서 지내는
차례가 확대되어 오늘날의 성묘 풍습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음덕 나누고 가족 화합 도모

차례의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상의 음
식을 자손들이 나누어 먹기도 하고, 조상
님께 바친 술을 나누어 마시는 행위를 음
복이라 한다. 음복은 돌아가신 조상과 자
손이 하나 되는, 즉 조상과 자손의 혈연적
인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구실점 역
할을 한다.

시 설

힘든 이웃과 함께 하는 차분한 설 연휴 때야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이를 앞
으로 다가왔다. 5일간의 긴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귀성이 시
작됐다.
설을 앞둔 사람들은 엔지 모두 다 가
슴이 설렌다. 연휴기간을 이용해 그동안
자주 찾지 못했던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적조했던 혈육과 친구들을 만
나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 AI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수천
만 인구가 이동하는 설 연휴가 가족집별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되기 때문이다.
올 설 연휴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사상 최대라고 한다. 해외여행
을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소외계층과
불우이웃도 한번쯤 되돌아 보는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원산지 속인 농산물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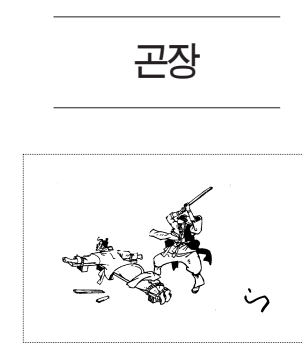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산 배추김치나
돼지고기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산
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지난달 1일부
터 광주·전남지역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원산지를 가
짜로 표기한 업체가 130곳, 미표시 업체
45곳 등 모두 175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3건과 17건이 증가한 수치다.

을하다 못해 역물하기까지 하다. 제값
을 주고서도 국내산이 아니라는 믿음이
깨질 때 소비자가 느끼는 배신감은 더
를 수밖에 없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
갑시켜 자기 이득만 챙기는 부끄러운
행태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한심
스런 생각이 든다.

無 等 鼓

명 세종(世宗) 주후충(1507~1566)
은 조정에서 대신들의 불기를 치는 것
으로 악명이 높았다. 즉위 초기에 친아
버지의 추존(追尊-왕위에 오르지 못하
고 죽은 이에게 임금의 칭호를 주는 것)
문제를 놓고 조정 대신들과 실랑이를
한 것이 끝나 화를 참지 못하고, 가
장 말을 듣지 않은 대신 134명을 잡아들
여 정장형을 내린다.

까지 받도록 한 셈이다.
최근 유명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구제역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
명했다. 유 장관은 "구제역 사태를 조속
히 종식시키고 모든 상황을 수습한 다
문제를 놓고 조정 대신들과 실랑이를
간간이 지내며 책임 소재도 분명히 드러
나겠지만, 정치인은 시시비비를 떠나
결과에 대해 깨끗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
한다"면서 "결코 장관
직에 연연하지 않겠
다"고도 했다.



은 수궁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국
민의 세금으로 생활해 온 공무원들이
단지 자리를 내놓는 것으로 모든 책임
을 다한 것처럼 군다면, 잘못된 정책
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누구
에게 호소해야 할 것인가. 정말 곤장이라
도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
평도 환영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